

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은혜대예배당
수요기도회	1부	오전 10:00	은혜대예배당
	2부	오후 7:30	은혜대예배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00	은혜대예배당(하절기) 꿈터 채플(동절기)
	2부	오전 6: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L-12 리더모임	수요일	오전 11:30	교구별 장소
		오후 8:30	은혜대예배당
M-12 리더모임	수요일	오후 8:30	5층 세미나실

◆ 교회학교 안내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1층
유아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1층
유치1·2부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5층
유년1·2부 (초 1~3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지하
소년1·2부 (초 4~6학년)	주일 오전 9:00 / 11:00	꿈의교육관 4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꿈터 채플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문화공간 채움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은혜대예배당
은빛시니어학교	목요일 오전 10:30	꿈터 채플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신 16:11, 막 1:15, 행 2:24



우물가 2022 Autumn Vol.237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36호
2022년 8월 30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행인 | 차동혁 지도 | 유지운 부장 | 승정배 팀장 | 이재만
편집위원 | 김숙희·이철현·김영남·이은경·이윤아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마음을 전하세요~

고척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

~~~~~

~~~~~

~~~~~

~~~~~

~~~~~

~~~~~

~~~~~

~~~~~

~~~~~

~~~~~

From.



# CONTENTS

## 차례

002 담임목사 칼럼 .....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004 기획특집1 ..... 코로나 이후 교회학교 세우기

008 기획특집2 ..... 요즘 핫 한 이단을 소개합니다

012 우물가 Twitter ..... 흰 구름 뭉개뭉개 피는 하늘에  
내인생 최고의 장면  
응답하라 1988, 라떼는 말이야~~  
가슴속에 깊은 감동과 눈물의 수련회  
처음으로 외부에서 보낸 수련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찐 그리스도인, 중등부  
가슴으로 쓰는 편지 |  
■ 또, 축복을 주시는 구나

038 책, 알고싶다 ..... [그림책] 월든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040 여유 N 힐링 ..... 도심 속의 공원 | 서울숲의 가을

046 찾아가는 사역탐방 ..... 식당봉사팀

048 우리 교회는? ..... 각 부서 이야기

068 그라티아 전시회



#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차 동 혁 담임목사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매 주일 함께 하는 이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 사이의 반가움, 그래서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작년 하반기 담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제출한 목회세부계획서의 첫 번째 항목은 목회철학과 비전이었습니다. 이 항목에 제가 제출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직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①예수님 한 분으로만 행복하고(딤후4:17), ②경천애인(敬天愛人)하며(막 12:29-31), ③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롬14:19).

이러한 목회철학에 따라 저는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사역이나 관계, 프로그램 등으로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여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①구원의 복음으로 행복하고(마5:3-12), ②

예배의 감격으로 행복하고(요4:24), ③복음을 배워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행복하고(빌2:5), ④복음을 전함으로 행복하고(행1:8), ⑤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행복한(마12:50) 교회를 꿈꿉니다.

짧은 단락에 저의 목회적 경험을 최대한 요약 해본 것입니다. 사역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보다 주님이 우선되는 목회, 신앙의 기본인 말씀과 기도 충실한 목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영적인 행복을 함께 누리는 목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목회입니다.

부족한 종을 고척교회에 담임목사로 불러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실 때는 교회에서 무언가 대단한 사역을 하거나 교인의 수를 늘려서 대단히 큰 교회로 부흥시키려는 뜻을 가지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신앙적 기준으로는 수천수만의 “교인”보다 단 한 명의 “성도”가 더 중요하고 5천 명의 “무리”보다 열두 명의 “제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도님들께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해 보이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약속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고전2: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이 결심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과거 고린도교회에 처음 부임할 때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전 2: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척교회에 부임한 저의 심경도 이렇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바울처럼 목회하고자 합니다. 바울처럼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교회 강단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이런 결심에도 부족함은 여전하지만, 크게 격려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

척교회가 지난 69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척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온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다음으로는 두 분의 원로목사님과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현재 함께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랜 신앙의 경주로 잘 닦여온 트랙에 덩으로 함께 뛰게 된 짝두기이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고척교회의 신앙 경주 트랙이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 코로나19 이후로 교회에서 다음세대가 모이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은 멈출 수 없다.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다음세대 부서에 관심이 있고 지원할 마음이 있음을 더욱 보여주는 것이 교인들의 교회 사역 참여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학교의 부흥과 성장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그래서 성민교회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부서별, 연령대별로 다양한 전도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소개하고 싶은 대표적인 부서별 맞춤 프로그램은 유치부의 '소풍으로 마음 열기'와 어린이부의 '체험형 교구로 참여시키기', 그리고 청소년부의 '블레싱 택시' 프로그램이다.

### 1. 유치부 '소풍'으로 마음 열기

코로나19 이후 가장 출석에 타격을 입은 부서는 가장 어린 연령대의 유아부와 유치부이다. 젊은 세대의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질병에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의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또한 유아부나 유치부는 연령대의 특성상 주일 모임에 식사나 간식이 빠질 수 없는데 식사나 간식을 먹을 때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은 이런 시간에 혹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는 않을까 염려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교회 주변에 있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놀이동산이나 공원 등의 외부에 장소를 정해서 모여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교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야외 소풍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로 인해서 좁은 가정에서만 있던 부모들로서는 외부로 나와서 자녀들과 함께 바람을 쐬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이들은 평소에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나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다. 그리고 소풍으로 한번 마음이 열린 부모와 아이들은 연이어 주일 예배에도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이렇게 소풍을 갈 때는 교사나 부모들만 동행하기보다 교회 안에 유

아부나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룹이나 후원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동행해도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후원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실내에서 모이기 어렵다면 실외로 나가 보라. 마음도 열리고 전도의 폭도 넓어진다.

### 2. 어린이부 '체험형 교구'로 참여시키기

어린이부는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성취하는 것을 즐기는 연령대이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 수동적으로 말씀 듣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구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교회 오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기쁘게 소개할 수 있다. 성민교회 어린이부는 농구게임과 축구게임, 미니 포켓볼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용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언제든 교회에 오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처음 교회에 전도되어 온 어린이들은 낯선 예배나 성경공부 보다는 익숙한 체육활동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참여한다. 오히려 처음 나온 어린이들이 이런 게임이나 활동에 기존 어린이들보다 더욱 재능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새로 나온 어린이들이 교회에 재미를 붙이

게 되면 정착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그리고 부서의 책상도 어린이들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퍼즐처럼 맞추면서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책상으로 준비하였다. 이를 통해 공부하며 놀고, 놀면서 공부하는 어린이 맞춤형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환경이 처음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호기심을 키우고 흥미를 일으켜 교회에 오는 것이 날마다 즐거워지고 있다.

### 3. 청소년부 '블레싱 택시'로 관계 형성하기

성민교회 청소년부는 교역자와 교사가 학생이 있는 학교나 학원으로 찾아가서 소수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 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 택시'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교사와 학생, 교역자와 학생간에 유대감을 높이는 데 크게 일조하였다. '블레싱 택시'는 청소년들이 평소에 학교와 학원 일정 때문에 밖에서 시간을 내서 만날 여유가 없다는 현실에서 착안한 프로그램이다. 담당 교역자와 담임 교사가 교회 승합차량에 학생들이 이 동시간에 편안함과 질 좋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고급 시트와 편안한 슬리퍼, 다양한 간식 등을 준비하고 학생의 동선을 따라 학교에서 학원, 또는 학원에서 가정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심방하는 프로그램으

로 진행되었다.

이 '블레싱 택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교회의 교역자나 교사를 소개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만남의 시작은 주일예배로 이어져서 많은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간에 담당 교역자는 청소년들에게 '요즘 나의 고민 1순위는?', '나에게 있어서 성민 청소년부란?' 등의 지정 질문을 재미있게 던지면서 부담 없이 대화를 시도했고 청소년들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이 요즘 어떤 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도 형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부의 정체성과 나아갈 바도 알 수 있는 바

람직한 의견 청취의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

19가 지나가고 있다.

엔데믹 이후 준비된 교회학교와 그렇지 않은 교회학교는 천양지차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준비가 잘 된 교회학교는 다시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교회학교는 침체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다시 회복되기 위한 전도의 방식을 고민하면서 연령대별, 부서별로 학습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때다.



### | 저자 소개



홍윙희 목사는 부산 성민교회 담임목사로 이승연 목사(고척교회 협동목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분홍목사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다음세대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고, 담임목회자가 나서서 교회를 다음세대 중심의 행복한 교회로 바꾸려는 행복한 모험을 7년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저서로는 <분홍목사의 교회교육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승연 목사는 고척교회 출신으로 장신대에서 기독교교육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고척교회 교육 자문을 맡은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코로나시대 기독교교육으로 묻고 답하다>가 있습니다.



"분홍목사의 교회교육 레시피"의 저자인 홍윙희 목사 부부는 올해 여름 석 달간의 안식년 기간을 갖고 있으며 이 기간에 미국 디즈니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을 방문해서 교회 교육이 나아갈 더 넓고 행복한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변신, 분화하는 이단**

**요즘 핫 한 이단을 소개합니다**

| 유미향 집사(소망23)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이단사이비의 전시장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이단 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등등입니다. 또한 교주, 교리와 포교방법들을 알고 있어서 조금은 안심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있을 때 이단들은 방법이 나날이 바뀌고 있으면 요즘 새로운 포교방법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와 같이 가정해체 및 갈등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교회로 들어와 추수꾼으로 인해 교회의 분란으로 성도간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구원의 기쁨보다 구원의 명에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에 왔듯이 이제 이단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간히 난 괜찮은데 주위에 친척들이, 친구가 이단에 빠졌어요~ 방법은요? 라고 상담문의가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이단에 우리는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 하다 생각합니다.**

요즘 핫 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하면 일본이죠 요즘 “가깝고도 먼 이단” 하면 동방번개 또는 전능신교 입니다. 그중 동방번개(전능신교)는 2012년 중국전당 대회를 앞두고 “사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신도 수 200만명에 달하는 동방번개를 단속하자 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들어 온 점.

동방번개가 상상을 초월한 현금 등 원력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들어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정명석 등 이미 알려진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은 크지만 아직 동방번개파에 대한 경계심이 그리 크지 않아 이미 대한민국 또는 조선족들 중에도 속아서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동방번개는 신도 테러와 살인 등 중국 본토에

서 이미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온 집단이라는 점 (동방번개의 정체와 상담 진용직 목사 지음참고).

게다가 요즘 이단상담소에 「동방번개파」에 빠진 사람들의 상담과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 동방번개의 교주는 조유산(1951.12월생, 부운지와 1979년 결혼, 1995 헤이룽장성에서 이혼, 양향빈(1973년 11월생)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난 여 그리스도로 내세움
- (사 41:2)을 통하여 동방(중국)에서 서방까지를 해석한다.
- 교리 ① 구약, 신약, 세 번째 시대가 온다는 삼시대 교리  
② 세 번째 시대에 영생을 완성한다.  
③ 세 번째 시대인 국도시대는 성화의 완성을 이룬다.
- 포섭방법 ① 관심과 사랑 ② 끈질기게 달라붙어 귀찮게 굴고, 속임수와 협박의 방법  
③ 이성끼리 교제한다. ④ 인간관계를 이용한다. ⑤ 책과 CD를 준다.
- 교리책 ① 말씀이 육신으로, ② 어린양이 펼친 책 등등이다.

이들은 신천지교리와 비슷한 추수꾼을 이용해 교회에 들어오고, 정명석교리와 같이 이성과의 관계에 성적으로 포교를 하며 하나님의교회의 교리와 같이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양향빈)을 주장하는 것이 곧 동방번개의 교리다 (누가 이런 이단에 속을까? 하지만 요즘 이단사이비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이비 종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조금만 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주위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충만한 삶은 삼위일체론의 교리인 우리 기독교는 참 성경적이구나 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마니 돛자리에 둘러앉아 풍금소리에 맞춰

#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 이환영 은퇴안수집사(소망27)



## 교회 마당에서 종알 종알~

즐겁게 떠들며 신나게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어린 시절 여름성경학교를 추억해봅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 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벼웁게 찾아 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교회 마당에서 여름성경학교 교가를 부르고 울동에 맞추어 큰 소리로 찬양하며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함께 보낸 즐겁던 시간이 지금 추억의 한자락이 되었습니다.

가마니 돛자리에 둘러앉아 풍금소리에 맞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라고 목청 높여 부르던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라고 성경 암송을 하면 선생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연필 한 자루와 공책 한 권. 그것을 받아 들고는 어찌나 좋았던지 어깨를 들썩들썩.

점심때가 되면 여성 집사님들께서 준비해주신 옥수수, 찐 감자, 앙꼬없는 찐빵 등으로 허기진 배를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던 기억. 무엇보다 교회에서 또래들과 땀 흘리며 신나게 뛰어 놀던 어린 시절 성경학교 속에서 만나는 나의 하나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내 손 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 나를 손잡고 교회 예배당으로 데리고 다니셨던 할머니께도 감사합니다.

성구를 외워야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국물 한 방울,  
고춧가루 조각 하나 남김없이 식판을 깨끗이 비워야만~

## 나의 어린 적 여름성경학교...

| 오선화 집사(사랑30)



**교회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 랜만에 교회 안에서 여름성 경학교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적 나의 성경학교 시절이 생각났다.



청년들은 기억이 없겠지만 현재 고척교회 성전의 기초가 된 베들레헬관과 나사렛관! 벽에 걸린 선풍기 몇 대로 더위를 식히며 말씀을 읽고 찬양하던 어린 날의 여름성경학교가 떠오른다. 그때는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잊어지면 코 닿을 곳에 집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잘 수 있다는 마음에 솔직히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말씀과 찬양, 기도를 배웠지만 나에게게는 늦은 밤 친구들과의 베개 싸움, 나란히 누워 나누었던 대화들이 하이라이트였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어느덧 새벽기도 오시는 어른들의 발걸음에 잠 못 들고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비록 꾸벅꾸벅 졸다가 예배를 마쳤지만 나사렛관 앞 마당에서 마시던 새벽 공기는 너무나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다.

'84년 중등부 시절, 철원의 도창국민학교(지금은 초등학교)로 갔던 수련회가 생각난다. 수련회를 통해 배운 것을



기반으로 지역 전도를 나갔다가 불교 믿는다고 문전 박대를 받기도 하고, 덩치 큰 개의 짖는 소리에 겁먹고 돌아서기도 하였지만 어린 학생들이 고생한다고 밭에서 수박을 바로 따서 주시는 후한 인심도 경험하였다. 학교 뒤편에는 큰 개울도 있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물장구치며 더위를 식히기도 하였다.

당시 전도사님이셨던 이형근 선교사님의 엄한 훈육도 생각한다. 성구를 외워야만 식사를 할 수 있었고, 국물 한 방울, 고춧가루 조각 하나 남김없이 식판을 깨끗이 비워야만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말은 안했지만 그 당시 나는 콩을 싫어해서 밥에 들어 있는 콩은 버리고 쌀밥만 먹은 후 검사받은 기억도 난다.

청년의 때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갔던 것도 생각한다. 온 교회가 고척동을 벗어나 수련회로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여름을 이겨냈던 기억들...



이렇듯 교회의 여름은 뜨겁고 시원했다. 잠깐의 일상을 떠나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여름성경학교! 나에게는 신앙 성장의 배움터였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였다.

“ 지금 교회 마당을 뛰노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교회가 놀이터였으면 좋겠다. 여름성경학교의 교가 가사처럼 흰 구름 뭉게 뭉게 하늘에 피어오르고 아침 해가 명량하게 솟아오르면 손에 손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들이 발걸음 가벼웁게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82년 중등부 교사 시절, 신탄진 작은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

# 내인생 최고의 장면

| 정상원 안수집사(중등부 부장)



**나는** 1973년 5월 고척동으로 이사와 고척교회에 등록했으니 50년 고척교인인 셈이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거치고 교사사역을 하며 수없이 많은 수련회를 참여하였고 수 많은 사건 사고와 감사한 일들의 추억이 겹겹이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1982년의 추억 한 편을 소환해 본다.



1982년은 대학부 회장과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던 시기로 중등부 수련회와 경남 산청에서의 대학부 수련회를 마친 후 신탄진의 작은 교회 여름성경학교를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다.

중등부 지도교역자였던 이형근 전도사님과 각 부서에서 차출(?)된 박창숙 고 김창욱 장로님의 두 딸 김정선, 김효선 그리고 장신대학교 오락부장이었던 신현광(지금은 파라과이 선교사) 외 4명이 더하여 10명이 도착한 대청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기에 충분하였다.

교회의 앞은 대청댐 하류의 물줄기가 강을 이루는 듯 했고 언덕 위 교회 뒤편은 무궁화꽃 호박냉국이 담장을 대신하고 마당 화단에 채송화 봉숭화 피어 있는 꽃이 예쁨 그 자체였고 요즘 대세 드라마

에 등장하여 명소가 된 동부마을 팽나무에 견줄만한 거목이 큰 그늘을 만들어 사랑방을 만들어 주는 정겨운 마을이었다.

3박4일간 진행된 시골교회의 여름성경학교 초롱초롱 꼬마들은 생소한 서울 사람들이 함께하는 성경학교에 멀뚱멀뚱 했으나 금새 친밀감을 나타냈고 성경학교 보조교사 역할을 담당했던 고등부 학생들과도 느티나무 아래에서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낮에는 회사에 나가고 밤에는 야학을 하고 있다는 은숙이란 학생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하며 특별한 관심을 두었던 학생이 있었는데 3년 후 대학부 농촌봉사 답사로 대청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뒤에서 목소리만 듣고서 나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어 놀래기도 하였다.

성경학교 기간 대청교회 집사님 집에서 기거를 하였는데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댐 아래 물에서 그물로 잡은 민물고기를 공수하여 매운탕을 원 없이 먹게하였고 대청담 시설관리에 책임자 였던 교회집사님 덕에 대청담 구석구석을 견학하며 수력발전소의 발전과정을 관찰하는 기회가 있었고 쾌속선 보트를 타고 대청담을 유람하는 특혜도 누렸으며 오후 집회가 끝나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 아이들과 저녁까지 이야기 하다가 댐 건너편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대청담 다리를 건너 돌아오는 길 하늘에 수없이 반짝이던 은하수를 보며 느꼈던 감동은 알폰스 도데의 별을 대하던 설 레임을 소환시키며 내인생최고의 장면으로 기억되고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예정에도 없던 화양리 계곡에서 텐트도 없이 야영을 하며 하룻밤을 보냈던 일도 기억 되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멤버들 중 만나고 있는 분도 만날 수 없는 분도 계시지만 옛 추억을 되새겨보는 이시간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고 고척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시어 고척교회 교육의 틀을 잡아주시고 수련회 식판에 밥알 남기지 않는 법도와 식사 성경암송의 법칙을 전수하시고 또 모스크바 선교사로 오랜기간 사역하셨던 이형근 선교사님 어려해 전 사모님을 먼저 여의시고 본인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선교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다.



수련회를 갈때는 교회에서 큰술, 냄비, 밥그릇, 손가락 등을 바리바리 신고~

## 응답하라 1988, 라떼는 말이야~~

| 송기진 안수집사(은혜21)



**2022년 7월** 무더위가 한창인 어느 날 그라티아 카페에 앉아 차한잔을 마시면서 문득 그라티아 카페가 있던 자리가 예전에 청년예배를 드리던 “나사렛관”이었던 자리였다는 생각이 떠올라 추억 많았던 1988년도 청년부 시절을 회상해본다.

**🍷 라떼는 말이야~** 고척교회에서 연세대 김동길 교수님 초청 말씀잔치가 있어서 교회에 갔다가 용기있게 스스로 청년부를 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예쁜 자매님이 아주 반갑게 친구처럼 맞이해주고 안내해주어 청년부에 잘 적응했고 지금은 그 자매님과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네

**🍷 라떼는 말이야~** 청년예배를 드리고 활동했던 나사렛관은 넓은 원룸 마루 바닥 이어서 방석을 사용하는 좌식이었는데 이 방석을 사용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시간이 더욱 경건하고 은혜롭게 해주었다네

**🍷 라떼는 말이야~** 토요일 청년모임 후에는 청년형제나, 자매님 집에 놀러가서 라면도 먹고, 학교생활, 진로 등 고민거리를 가지고 밤새워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 큰소리로 중보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네

**🍷 라떼는 말이야~** 청년부가 수련회를 갈때는 교회에서 큰술, 냄비, 밥그릇, 숟가락 등 취사도구를 바리바리 싣고가서 수련회장소 마당에다 술을 걸고 직접 요리를 해먹으면서 수련회를 했는데 이러한 아기자기한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같이 동행하신 권사님들께서 김치찌개, 카레라이스, 감자전 등 해주신 음식은 어찌나 맛있던지 정말정말 꿀맛 이었다네

**🍷 라떼는 말이야~** 주일에 교회와서 예배가 끝나면 지하식당에서 가족이나 소그룹별로 두런두런 모여서 맛있게 국수를 먹었는데 뜨끈한 멸치국물맛이 어찌나 일품이던지 이 국수 먹을 생각으로 주일날이 손꼽아 기다려질 정도였다네 어떤 권사님은 청년들은 한창때라서 많이 먹어야 된다고 두그릇을 얹어서 곱빼기를 만들어 주시곤 했었다네 아 그리워라 고척교회 잔치국수^^



지금은 4차산업혁명 시대로 모든 것은 지능정보화 되고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1988년도 청년부 그 시절이 더욱 순수했고, 소중했고, 아름다웠으며 나에게서 신앙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그 꿈망던 청년시절을 함께했던 형제, 자매님이 어느덧 환갑, 고희의 나이가 되었어도 아직도 고척교회의 리더로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음이 더욱 감사하고 감사하다.



지난날 수련회의 감동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 가슴속에 깊은 감동과 눈물의 수련회

| 윤보영 집사(믿음25)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잘 모르고 친구가 가자고 하니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서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였지요. 예배시간에 성가대를 하기도 하고 고등부에 올라가서는 '낮은 울타리'라는 찬양단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짝친구와 교회 생활을 하며 청소년기의 방향을 시작하려고 하면 수련회라는 행사가 하나님께 다가가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의 중등부의 수련회는 선생님들

의 다양한 활동으로 '세족식' '찬양집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지만 저는 '찬양집회'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까지 찬양의 힘은 제 신앙의 원동력이 된 듯합니다. 교회에서 찬양 시간보다는 수련회의 찬양 집회가 가사 하나 하나 제 마음 속에 파고들었고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세족식은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억으로 제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희생이 없으면 학생들의 발을 닦아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듯이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니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련회의 활동의 감동으로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어려움도 먼저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저의 자녀들도 고등부의 수련회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의 신앙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 가운데 저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저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그렇게 모여앉아 캠프파이어를 하며 목청껏 찬양 부르던 일들

# 처음으로 외부에서 보낸 수련회

| 이윤정 집사(청년부 부감)



## 코로나19로 ...

2년여 동안 여름수련회가 중지되었다가 올해 각 부서에서 여름수련회를 활기차게 준비하는 것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나의 학창시절 수련회를 떠올려봅니다.

고척동에서 나고 자라 고척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나에게는 너무 많은 추억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생각나는 것은 처음으로 외부에서 보낸 수련회가 떠오릅니다. 1981년 갓 중학교를 입학하고 그해 여름 우린 강원도 철원 한탄강 근처 어느 조그마한 초등학교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며 어항을 놓고 물고기들을 잡고, 밤새 친구들과 수다 떨며 잠을 안 자 꾸중 듣던 일, 식사담당으로 봉사해주신 권사님들의 옥수수과 감자간식, 동그렇게 모여앉아 캠프파이어를 하며 목청껏 찬양 부르던 일들은 지금도 추억이 되어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짓게 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것은 대학부 시절(지금의 청년1부) 지금은 없어진 옛날 구 분당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 나에게 찾아와 주셨던 주님을 만나고 밤새 눈물, 콧물 쏟아내며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원으로 유아부 수련회의 점심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수련회의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새롭게 시작하는 수련회에서 강렬한 태양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시원한 폭포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 나의 여름수련회 이야기

| 양애리(청년부 90도래)



2019년 여름 수련회 사진

2022년 고척교회 청년공동체 여름수련회를 기대하며 글을 조금 적어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사역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여름수련회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19년 여러 손길과 기도로 진행되었던 2박 3일 일정의 여름수련회 기간은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여 찬양, 기도, 말씀이 끊임없었고, 나눔으로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응원했습니다.

여름수련회의 특별한 시간인 물놀이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시원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 그러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멈췄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수련회는 왜 있을까?'라는 질문에 '주일예배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주 하나님을 만나고, 수련회는 외식하며 특별한 음식을 먹듯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과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여름수련회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길 기도합니다.



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찐 그리스도인, 중등부

| 김형선(청년, 중등부 교사)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2022년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찐! 그리스도인!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느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등부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은 마음을 합하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릴레이 금식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하나, 둘 기도로 모으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도 여름 수련회를 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중등부 여름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몇 가지 나누어본다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 날 황정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사랑의 방법과 언어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자 집회의 기도시간, 더욱 아이들과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등부 아이들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16절 말씀을 주제로 떠났던 수련회 가운데,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나님은 우리 중등부에게 강력히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3조 아이들과 함께 썬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하다가 제가 발을 다치게 되어 정형외과를 급히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이 아닌 교사인 제가 조금 다친 것이 다행스럽고 수련회 시간 동안 제일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 아이들이 김형선 선생님을 찾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 조금이라도 아이들과 기쁘게 호흡하며 뛰었구나라는 행복으로 감사. 그저 전부 아픔보다 감사의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모든 상황이 그저 감사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잘 마치게 되었구나라는 마음에 가슴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 추억이 아닌 기억으로

| 박명희 집사(은혜11)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동네 골목에 큰 나무 대문집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리던 어느 날 동생과 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그곳에 가게 되었다. 마당 한쪽엔 붉은 앵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대문 밖에서 쭈뼛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선생님 한 분이 들어와도 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우리들을 맞이해 아이들이 있는 큰 마루방으로 안내해주셨다.

이미 방 안에선 무엇인가 재미난 이야기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하얀 보드위에선 풀칠도 안 한 그림이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곤 하며 우리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은 '용판설교'였다. 그때 나는 6살 쯤 이었던 것 같다. 내가 드린 첫 예배였고 첫 교회였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잘 생각이 나진 않는다. 오롯이 그날의 낮설음과 그날의 신기함과 그날의 평안함을 기억할 뿐이다.

그 후 이사 가는 동네마다 동생과 나는 가장 먼저 십자가집, 교회를 찾았다. 그러다 중·고등학생이 되어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한 나이가 되자 교회선택에 친구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결국 각자의 '우리교회'가 생겼다. 그때부터 주일예배 뿐 아니라 학생예배, 새벽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문학의 밤, 찬양대 봉사 등 모든 교회활동이 풀가동 된 시기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서, 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 평소 모든 예배와 교회생활에 모범적이었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자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칭찬거리였다. 그즈음 어릴 적부터의 오랜 기도제 목이었던 엄마가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일찍이 믿음생활을 하던 언니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서 청년부 언니 오빠들과도 친하게 되었다.

**이 시절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셨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괴로워 할 때도,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아니 그보다 먼저 붉은 앵두나무가 심겨져 있던 그 나무 대문 집 첫 교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던 것이다, 태초부터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심연과도 같고 빈 쪽정리와도 같은 나의 삶에 찾아와주셔서 참 빛! 참 생명을 갖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한다.**



# 또, 축복을 주시는 구나

| 유순덕 집사(믿음19)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결혼한지도 어느 덧 10년이란 세월이 지났구나.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 며느리에게 늘 고마운 생각뿐이다.

민음의 가정에 시집와서 서로 신앙이 달라 많이 걱정했었는데~~

특별히 여전도회 모임을 통해서 기도제목으로 내놓았지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유치부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접실에서 전화가 왔었지

“집사님 며느님 등록하고 있는데 어디계세요?” 깜짝 놀라 영접실로 올라가보니

우리 며느리 병은이가 이민애 집사님과 함께 새신자 등록을 하고 있더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쌍둥이 낳아서 감사했는데 또, 축복을 주시는 구나

며느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 밖에 안 나왔지.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 손주들 잘 키워보자구나

너희들 가정으로 인해 행복한 일들이 많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주변과 우리 주위를 살피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늘 축복을 주시지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마음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보자



강원도 평창 보타닉가든에서 아들 가정과 한 컷

## 자연에서

#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며 살았던 실제 이야기

| 고척교회 책마을지기

자연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며 살았던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실제 이야기이다. 28살에 호숫가에 통나무집을 짓고 2년2개월을 지낸다. 그 곳에서 지내며 보고, 느끼고, 배운 모든 일상을 글로 적어 많은 수정 끝에 책이 출판되었다. <월든: 숲에서의 일 년>은 원작 <월든>에서 뽑은 글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편안한 그림과 함께 철학적인 무거운 주제를 함축적으로 잘 담고 있다. 단절된 세대, 개인주의적 시각들이 많은 요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내 안에 나를 돌아보기 좋은 책이다.

그림책과 함께 두께감 있는 묵직한 원작 월든(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강승영 옮김, 은행나무 2011)도 추천드린다.

[그림책] 월든: 숲에서의 일 년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지오반니 만나 그림, 정화성 옮김, 길벗어린이 2020



자연에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며 살았던 실제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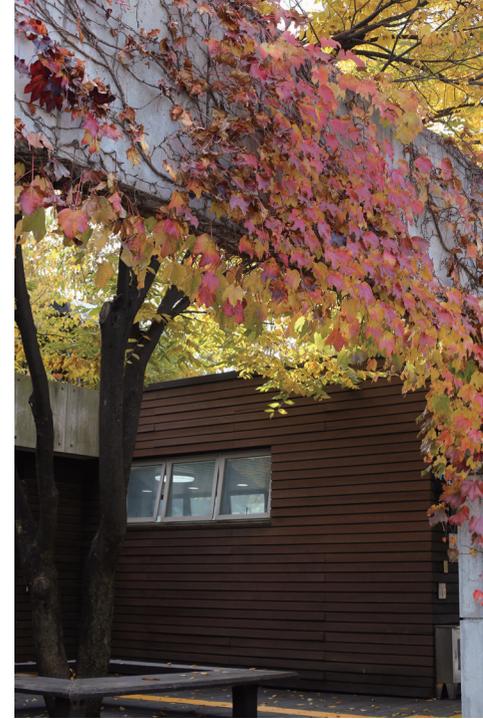
도심 속의 공원이 주는  
여유 N Healing

8탄

형형색색 물들때면 아름다운 곳이 많은 대한민국

서울숲의 가을

| 글·사진 이은 경 집사(사랑 39, 편집위원)



<서울숲>의 가을을 만나보세요.

요즘은 꼭 그렇지 않은 않지만, 우리나라의 계절은 계절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계절마다 피거나 단풍으로 물들어 그 계절에 맞는 색으로 온 자연이 물들어 가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을 명소 중에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어느 곳을 소개하면 좋을까 찾다 보니 주저없이 서울숲이 떠올랐습니다.

필자는 사진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 종종 출사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갔던 곳 또 가려니 식상하고, 매 출사마다 새로운 곳을 찾아내자니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출사수업을 해 오다가, 수강생이 만족해하고 강사인 필자도 부듯하게 출사를 진행하는 장소 몇 곳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 동쪽의 한강변에 있는 <서울숲>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찾아가도 아름답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지만, 특히나 가을의 서울숲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서울 숲은 문화 예술 공원, 체험 학습관, 생태숲, 습지생태원 등 네 가지의 특색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강과 맞닿아 있어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의 체험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어린이들만을 위한 놀이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서울숲의 가을은 그 어느 계절보다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입구 가까이 있는 거울 연못은 젊은이들의 인생사진 포토 스팟으로 이미 유명하고, 커다란 은행나무 길과 메타세콰이어 길이 주변의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 멋진 도심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못에 물을 얇게 채워서 주변 풍경을 반영시켜 담기에 아주 좋은 거울 연못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이고,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노랗고 빨갛게 물든 담쟁이덩굴의 조화가 그리고 아름다운 갤러리 정원 또한 빛이 부드러운 시간에 가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가을을 대표하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설렘정원과 쪽쪽 뻗어 늘어선 메타세콰이어 길,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길 등 가을의 화려한 색감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교통편은 지하철 2호선 독섬역에서 가깝고, 구로구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한시간 정도의 거리라 접근성이 좋은 공원입니다.**

**을 가을엔 아름답고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서울숲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며 힐링의 시간 누리 보시길 바랍니다.**



… 연못에 물을 얇게 채워서 주변 풍경을 반영시켜 담기에 아주 좋은 거울 연못은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장소이고,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노랗고 빨갛게 물든 담쟁이덩굴의 조화가 아름다운 갤러리 정원 또한 빛이 부드러운 시간에 가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 오병이어를 통한 은혜의 물결

| 안송근 권사(식당봉사 사랑7)

코로나로 굳게 닫혀있던 오병이어 식당을 보면서 어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중 7월 즈음에는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슴 한 구석에는 은혜의 물결이 출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처음 봉사자로 일하겠다고 다짐 하던 날 이후로 몇 년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를 하던 중에 손가락조차 들기 힘든 류마티스 질환이 치료되기도 했었고, 40여년 역지로 지내왔던 제사일로 가정불화, 경제적 파탄, 가장의 암 투병 등 삶의 연단이 있어왔지만 주님이 먼저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먹는 진수성찬보다, 보리밥에 김치 한 가지라도 감사하고 맛있게 먹을 때 이것이 우리 몸에 더 좋은 보약이 됩니다’**

삼복더위에 가마솥에 끓는 국물에도 감사, 팀원끼리 서로 무거운 건 함께 들고 맛도 함께 보고 설거지도 서로 먼저 하려고 했던 기억들,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아껴주며 재미있게 토요식탁부터 주일식당 봉사까지 힘든 줄도 모르고 황보영 팀장 권사님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해야 할지 각자의 레시피 담당에 따라 칙!칙!칙! 특히, 3부 찬양대는 마지막 팀이라 식사가 끊어질 때가 종종 있었음에도 제일 미안하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움 들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족단위, 부서별 식사를 줄서서 기다리시는 성도님들도 빨리 뵙고 싶습니다. 그릇 삶아서 소독하는 곳은 폭염 속이지만 그 곳에서도 극한봉사로 섬기시는 남자 집사님들 또한 사랑합니다. 손가락을 펴 펴 끓는 물에 삶아 건져 내어 소독기에 넣어주던 권사님들의 손길도 너무 그립습니다. 김치배식해주고 식탁 닦아주는 여전도회원님들도 하루 빨리 뵙고 싶습니다.

**| 마무리가 거의 끝 무렵 삶은 행주 삶은 걸레 세탁기 돌아가는 “둥글~! 둥글~!” 소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영아부

## 여름성경학교를 마치며

| 장은 주 목사(영아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여름성경학교가 올해에는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완벽하게 같지는 않더라도 현장 중심의 성경학교를 기획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막 1:15)입니다. 영아와 부모가 함께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고 그 뜻을 따르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경 속 사람들의 모습을 배워 가길 소망하며 기획하였습니다.

특히 영아의 성장발달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온몸으로 경험하는 오감 연극예배, 대그룹 주제활동 다감각 놀이, 성경이야기책 놀이, 남남 나눔 활동, 물고기잡기 여름 놀이, 그리고 부모를 위한 이야기 모임까지 의미 있고 재미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말씀 속에서 찾아본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소중한 영아부 식구들이 되길 축복하며, 참여해주신 아이들과 부모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교사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별별 친구들아, 찾았어? 하나님 나라가~~"

| 정 윤 경 목사(유아부)

무더운 여름~~ 유아부 별별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현장에서 대면으로 얼마만의 여름성경학교인지요. 저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선생님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기도 하고 긴장감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일마다 1시간여 동안 만나던 시간들이 늘 아쉽기만 했는데, 같이 말씀을 배우고 만들고 같이 먹고 놀이한 시간들을 통해 선생님들과 더욱 친밀해지고 유아부에서 함께 한 이들의 시간이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성경학교 한달전, 별별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은 홍보영상을 통해 교회학교에서 가장 먼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됨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름성경학교 1주일전, "찾았다!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맞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

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의미를 담은 캐릭터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새로미와 이로미의 성경학교캐릭터 친구들의 인형극 '탐험이야기'를 통해 여름성경학교를 더욱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 당일, 새로미와 이로미캐릭터가 새겨진 찐노랑티셔츠를 입은 친구들의 모습속에서 새로미 이로미는 바로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주제말씀과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성경이야기, 그리고 팝업북을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유아부 아이들의 믿음의 한걸음 한걸음들이 얼마나 귀하고 어여쁜지요.



이들간의 다양한 여름성경학교 일정을 마치고 엄마아빠 손을 붙잡고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엄마! 엄마!... 여름성경학교 또 언제 해요? 또 하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고척교회 유아부입니다.**

**"큰별작은별 친구들아, 찾았니?  
하나님 나라~~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란다."**



#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 이 지혜 목사(유치부)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름 사역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주인공으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처소인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지와 초청장을 만들어 고척동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전달하고, 교회 전도대원 분들과 함께, 부서에서 만든 초청장과 간식으로 전도 활동을 하며 성경학교를 알리고자 노력한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헌신은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지속적인 날씨의 변화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유치부에서는 여름성경학교와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릴레이 중보기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함께 기도하면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 당일, 좋은 날씨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성경학교에 참석할 수 있었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했던 물놀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코너학습 담당 교사로 섬겨주신 부모님들, 아이들을 생각하며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신 성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과 사회와 가정과 국가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주세요!”



2022년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며...

| 윤 정 환 전도사(유년부)

2년 6개월. 코로나19로 아이들과 함께 모여 마음껏 뛰어놀면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시간의 길이입니다. 1학년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성경학교 한번 못하고 3학년이 된 지금에서야 현장에서 진행하는 여름성경학교를 맛보게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비단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년부 아이들이 처음으로 교회에서 다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감사와 간증거리들이 있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성경학교 준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유년부를 5년째 담당하며 사역자가 바뀔 때 마다 부서의 사역들에 너무 큰 변화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모든 사역에 더 깊이 들



어와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해보시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차 2년차 계속해서 이러한 시도를 해왔고 물론 담당교역자가 몇 가지 사역을 함께 맡게되는 상황도 한 몫을 했겠지만, 코로나19가 지나고 올해 진행된 유년부 성경학교는 정말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준비된 너무나 귀한 성경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셨으며 이 모든 준비를 위한 기도 또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 유년부를 위한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무더운 여름 유년부를 위한 일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

| 강이삭 전도사(소년부)

저는 올해 5월부터 소년부를 담당하게 된 강이삭 전도사입니다. 고척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년부는 지난 7월 16-17일에 소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겨난 후 3년 만에 열리는 여름성경학교로, 처음에 진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동시에 참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과연 여름성경학교를 예전과 같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너무 적게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마음을 부서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소년부 전체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의 주제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 소년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꿈을 꾸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소년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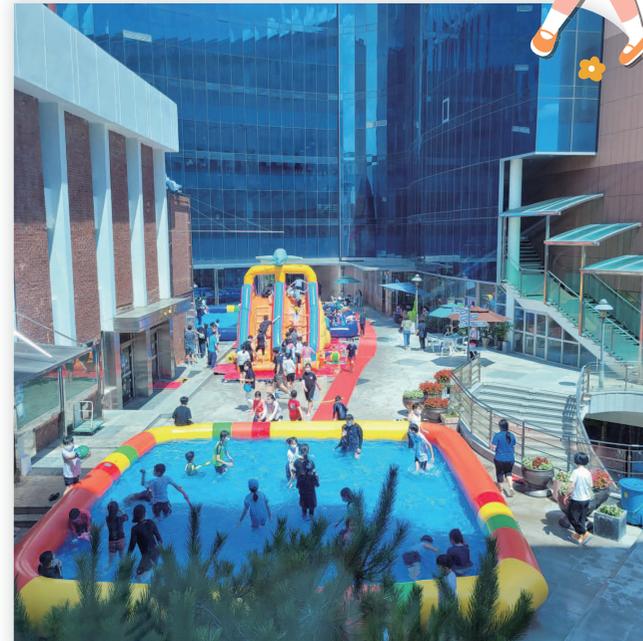
아이들의 '복음'에 관한 원활한 이해와 숙지를 위해, 7월 한 달 내내 '복음'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 형식으로 나눴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당일, 16일 토요일에는 복음을 몸소 즐겁게 느끼고 누리기 위해 신체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2번의 말씀 시간, 팀을 나눠 코너를 돌며 진행한 방방 코너 레크리에이션, 선생님과 친구들의 즐거운 교제와 식사 시간, 교회 마당에서 진행한 고척 미니워터파크. 특별히 16일 토요일 점심에 소나기가 내릴 거라는 기상예보가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아 쾌적하고 원활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7일 주일에는 예배와 반별 활동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별 시간에는 참나무 십자가를 만들며 예수님의 은혜와 희생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였습니다. 소년부는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봉사하고 기도, 물질로 섬겨주신 소년부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년부 아이들이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익힌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허락하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다!

| 박 동 운 전도사(중등부)



##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2022년 고척 중등부는 ‘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주제 성구는 디모데전서 6장 11~16절 말씀으로,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무기력했던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에 생기가 불어왔으며 중등부 선생님들에게는 사명감이 회복됐고 저에게는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귀하고도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날 ‘진 공동체 코스’ 프로그램으로 캘리수채화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 임원 친구들이 진행한 ‘짤 찐 레크레이션’ 시간과 ‘찐 영상 프로젝트’로 You Still Love Me\_제이어스 찬양에 맞추어 조별로 뮤직비디오 촬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나누기 찐 카드’를 준비해 조별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듣는 교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는 황정식 목사님께서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찐 신앙 코스’ 프로그램으로 신학교 탈출게임을 진행하였고 신나는 ‘찐 워터’ 물놀이와 ‘런닝맨 저녁식사’로 북북북 저녁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한밀스튜디오 찬양팀을 섭외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수련회에 임하면서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제목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함께 고민하였고 수련회를 통해 품게 된 단어는 ‘오직’ 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다양하고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오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중등부 친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며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함께하는 기쁨이 가득한 시간

| 김재광 목사(고등부)

올해도 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웠다. 수련회 일정이 가까워 올수록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였고 어느새 10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들려왔다. 그러나 3년 동안 고등부에서 수련회를 가지 못했던 고3들을 필두로 모두들 함께하는 여름 수련회에 대한 갈망을 꺾지는 못했다. 매주 50여명이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수련회를 가겠다고 60여명이 신청을 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망은 그대로 수련회까지 이어졌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함 가운데 뜨거운 수련회가 되었다.

마태복음 11장 18-20절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라는 주제를 갖고 충북 단양에서 2박 3일간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4시간이나 되는 먼 길이었지만 단양의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고등부에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져야 했던 아쉬움이 늘 컸는데 수련회 기간을 통해 고등부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 웃고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게임과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자체 제작한 “예수님과 함께하기” 교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을 배웠다. 성



경공부 도입부에서는 ‘감정카드’를 사용해서 서로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언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서로의 마음을 감정을 통해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다. 저녁 집회 시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함께 연합해 기도로 나아갔다. 대입과 진로를 앞두고 있는 고3들을 위해 공동체 모두가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온종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다.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 각자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께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

**또 한번의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기다렸던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리며 매주 고등부 예배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자라고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 청년부 소식

| 이윤아 청년('92또래, 편집위원)

### 1. 5월 29일 : 청년공동체 헌신예배

매년 5월 마지막 주는 청년주일이다. 청년의 때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서로 믿음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고척 청년공동체는 올해 '기초를 세우라!'는 주제로 2022년을 달려가고 있다.

청년공동체 헌신예배에는 많은 순서들이 진행되었다. DOD 워십댄스팀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롯해 올해 20살이 된 새내기들의 성년축복식이 진행되었다. 많은 고척의 청년들이 참여해 이들이 성년이 됨을 축하해 주었다.



매년 진행되는 청년공동체 헌신예배였지만 올해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신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고척 청년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고척의 많은 성도님들께 고척 청년공동체의 기동 같은 리더십들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 2. 8월 5일 ~ 8월 7일 : 2022 청년공동체 여름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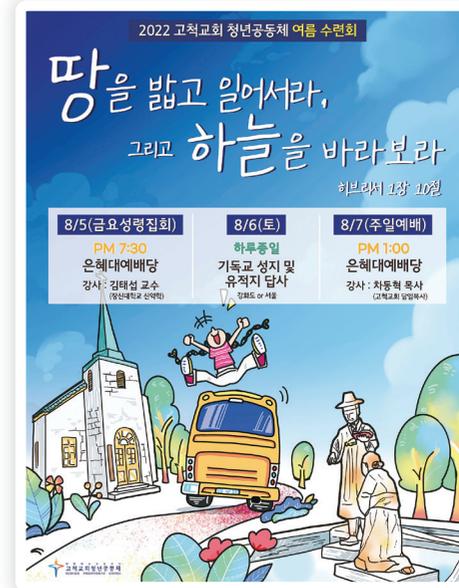
2022년에 들어서며 청년공동체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단연 여름수련회일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여름수련회가 올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땅을 밟고 일어서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히 1:10)'를 주제로 총 3일에 걸쳐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5일 금요성령집회에는 김태섭 목사의 귀한 말씀이 있었고 6일에는 청년들이 강화도와 서울로 흩어져 기독교 성지 답사와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하게 되었다. 이 땅 조선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보내 주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삶을 따라가보고 복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인 7일에는 차동혁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시간이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이번 여름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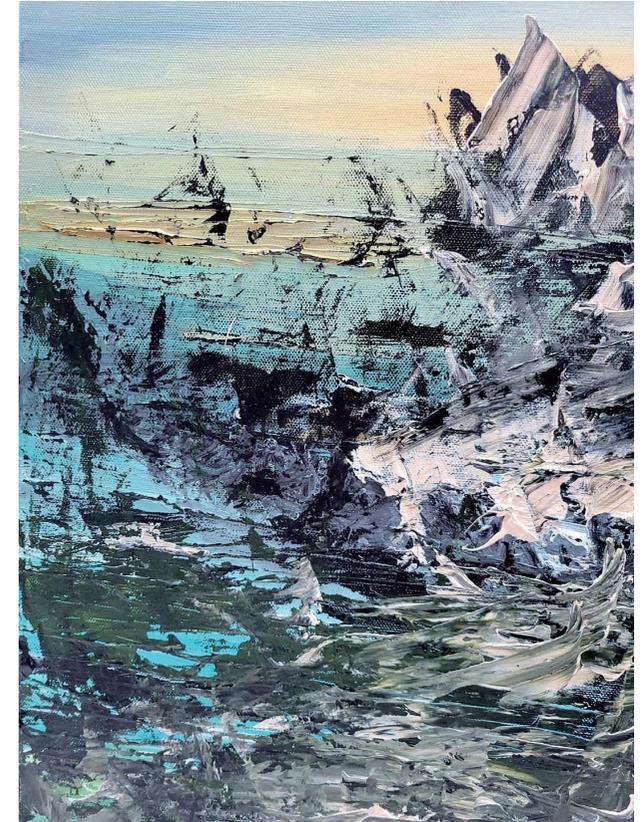




작가: 최미정

## [요정들의 선물(present of fairy)]

어렸을 적, 꽃을 바라볼 때 마다 요정이 나타날 거란 믿음을 가졌다.  
 꽃이 피려면 요정들이 물을 뿌려주고, 지켜봐 줬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꽃들이 자라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질어지면서 요정에 대한 믿음은 사라졌지만,  
 아침햇살에 빛나고 있는 화병의 꽃을 보다가  
 캔버스위에 요정을 불러냈다.  
 이젠 바로 "요정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닐까!



작가: 황속희

## [모멘토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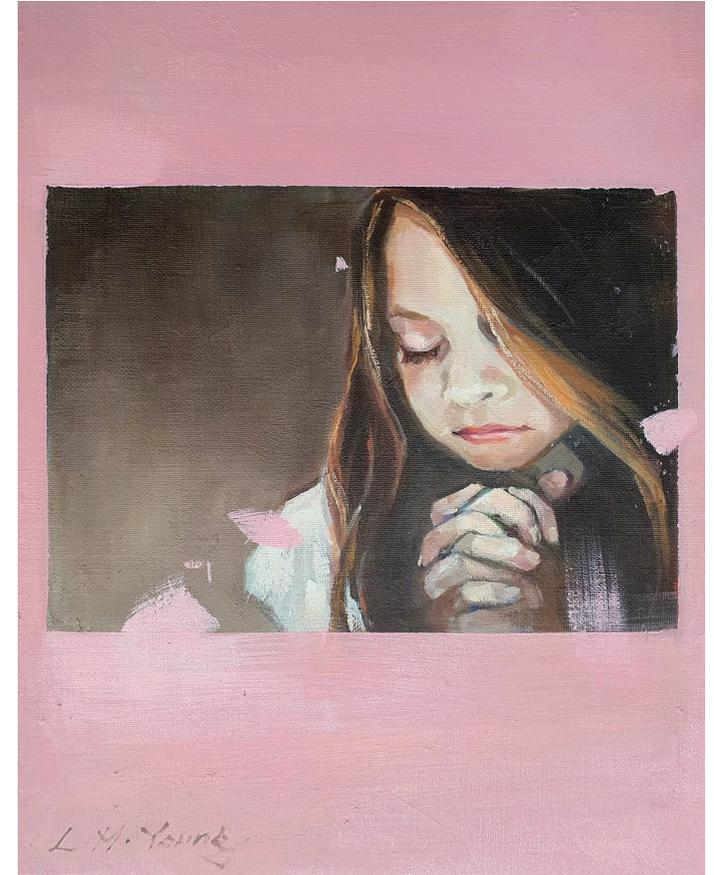
모멘토 시리즈 1-12로 구성된 이번 개인전은 연상된 화면의 짧은 순간들을 접사화한 이미지를 즉흥적 휘젓기로, 파도의 한순간, 꽃피움의 한순간, 무대 위의 한 장면, 낮선 오브제, 오후 4시경의 햇살 한조각간 어둠속의 불빛, 지난 기억의 한 자락이 될 수 있는 순간들을 포착하여 구현되었다.  
 아주 잠깐 동안의 낮설고도 익숙한 순간들이 스프링처럼 기지개를 켜듯 외부로 잠시 튀겨져 나왔다가, 봄날에 잠시 내린 낮선 눈(雪)처럼 찰나의 모습들은 봄 햇살에 눈이 녹듯 저절로 사라질 것 들이다. 그리고 다시 봄날에 스프링처럼 튀어 오를 때를 기다린다.



작가: 노춘자

## [Let's play]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언제나 강함을 주시고  
 저에게 주신 숙제를 매일매일 잘 풀어가게 해주시고 하얀 캔버스에 사랑하는 꼬마 천사들을  
 그리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가: 이미영

## [간절한 마음으로]

요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무게가 느껴지는 삶속에서 작은 소망을 그려본다.  
 요즘처럼 전쟁과 경제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 힘든 때에 어른들의 욕심으로 생긴 이 고단한 삶  
 은 아이들에 짐으로 남게 되었지만 나는 작은소녀의 기도를 통해 좀 더 나은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다.  
 툰 다운된 컬러로 지금상황을 표현했고 배경색을 통해 희망을 표현했다.